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13, 2024 Q1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DB제도

2023.12.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DB제도 '적립 부족'시 작성하던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제도 폐지

- 2022년 4월, 재정검증 결과 평가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회사)가 일정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
 - 근퇴법 시행령 제 7조제2항에 따르면,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 2023년 12월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회사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폐지됨. 즉, 회사는 부담금 부족분 해소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게 됨.



DB제도를 운영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간사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수령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적립 부족'으로 통보되는 경우, 기존 재정안정화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2024년 12월 까지 (직전 사업연도종료 후 1년 이내) 납입하셔야 합니다.

DC제도

2022.7.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도입 1년 성과 (2023년 말 기준)

상품 위험도별 구분		DC 디폴트옵션 적립금 총합 (억원)	상품별 단순 평균 수익률 (DC 및 IRP)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원금보장	초저위험	79,593 (92.6%)	0.31%	0.93%	1.77%	4.56%
	저위험	3,511 (4.1%)	1.73%	3.17%	2.64%	7.69%
원금 비보장	중위험	2,081 (2.4%)	2.86%	5.23%	3.91%	10.91%
	고위험	808 (0.9%)	3.95%	6.92%	4.85%	14.22%

- 2022년 7월 개정된 근퇴법에 따라 2023.7.11까지 DC제도 도입 회사는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반영하였음.
- 2023년 말 기준, DC제도 전체 자산의 약 8.9%인 8조 5,933억원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 중 92.6%는 원금보장상품인 초저위험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 다만, 현재 DC 디폴트옵션에 투자된 적립금의 약 90% 이상이 2023년 하반기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속적인 상품 수익률 모니터링이 필요함.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 이므로, 현재까지도 DC규약에 디폴트옵션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규약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 (2023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5.3%, 4.7%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년 말 대비 유사 (2022년 말 95.9%, 4.1%).
- 과거 적립비율을 순차적으로 높였던 회사들이 2022년 이후 100% 적립률에 맞춰 DB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최근의 국고채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검증 예정이율 상승으로, 예상 최소적립금이 감소함에 따라 연말 부담금 납입액이 예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예측됨.
(DB 적립금 증가율: 2021년 16.7% → 2022년 12.2% → 2023년 6.7%)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81.2%, 18.8%로 여전히 대부분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2022년 말 82.6%, 17.4%). 단, 과거 대비 높은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리에 따라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중이 소폭 증가함.
- 2023년 시장 회복에 따라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수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됨.
(최근 1년 수익률(사업자별 운용관리자산기준 가중평균): 2022년 말 -16.9% → 2023년 말 14.4%
최근 5년 수익률: 2022년 말 0.5% → 2023년 말 4.5%)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총 합	비중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195,752	78,844	54,480	329,076	87.0%
원리금비보장형	9,587	18,232	21,137	48,956	13.0%
총 합	205,339	97,076	75,617	378,032	100%
비중	54.3%	25.7%	20.0%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84,728	2,287	87,015	42.4%
증권	40,154	3,540	43,694	21.3%
생명보험	58,529	3,737	62,266	30.3%
화재보험	12,341	23	12,364	6.0%
총 합	195,752	9,587	205,339	100%
비중	95.3%	4.7%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55,082	6,556	61,638	63.5%
증권	11,138	9,719	20,857	21.5%
생명보험	10,796	1,799	12,595	13.0%
화재보험	1,828	158	1,986	2.0%
총 합	78,844	18,232	97,076	100%
비중	81.2%	18.8%	100%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3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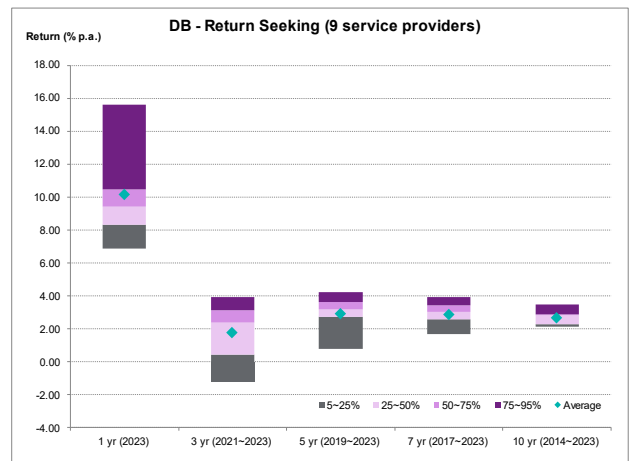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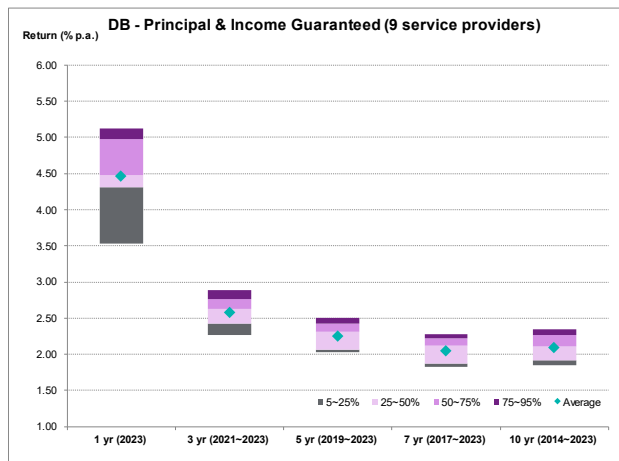
- 2022년 말 대비 7개 사업자의 원리금보장형 자산은 증가하였으며, 하나은행(24,716억원), 교보생명(11,830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큼. 단, 미래에셋증권(-1,060억원), 현대차증권(-440억원)은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소폭 감소함.
- 2022년 이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23년 6월 대비 100bp 이상 상승하였음.
- 한국투자증권의 1년 수익률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생명이 3.1%로 가장 낮은 수익률 보임.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3년 4분기 시장 상승에 따라 9개 사업자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023년 6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2023년 6월 4.80% → 2023년 12월 10.20%), 특히 삼성화재(16.4%), 교보생명(14.4%), KB국민은행(10.5%)은 두자릿수 수익률 보임.
- 2022년 말 대비 상위 9개 사업자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증가액 평균은 1,505억원 수준인 반면, 삼성생명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증가액은 12,464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음.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3)	3년 (‘21-’23)	5년 (‘19-’23)	7년 (‘17-’23)	10년 (‘14-’23)		1년 (2023)	3년 (‘21-’23)	5년 (‘19-’23)	7년 (‘17-’23)	10년 (‘14-’23)
신한은행	15,331	4.5	2.4	2.1	1.8	1.9	531	8.9	3.8	3.7	3.4	3.0
하나은행	14,707	4.5	2.5	2.1	1.9	1.9	452	7.0	4.0	3.6	3.3	2.9
KB국민은행	11,023	4.3	2.3	2.0	1.8	1.8	413	10.5	2.5	3.2	3.0	2.8
현대차증권	14,337	4.2	2.7	2.4	2.2	2.3	566	9.4	0.5	2.4	2.1	2.3
한국투자증권	6,479	5.2	3.0	2.6	2.3	2.4	684	8.3	3.1	4.2	3.5	2.9
미래에셋증권	6,149	5.0	2.8	2.4	2.2	2.3	747	6.8	2.4	2.8	2.7	2.4
삼성생명보험	36,846	3.1	2.2	2.1	2.0	2.0	2,597	10.0	2.0	4.2	4.2	3.8
교보생명보험	8,458	5.0	2.8	2.4	2.1	2.2	494	14.4	-0.2	2.9	2.6	2.1
삼성화재해상보험	5,196	4.4	2.6	2.3	2.1	2.1	5	16.4	-1.9	-0.3	1.4	2.1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3년 12월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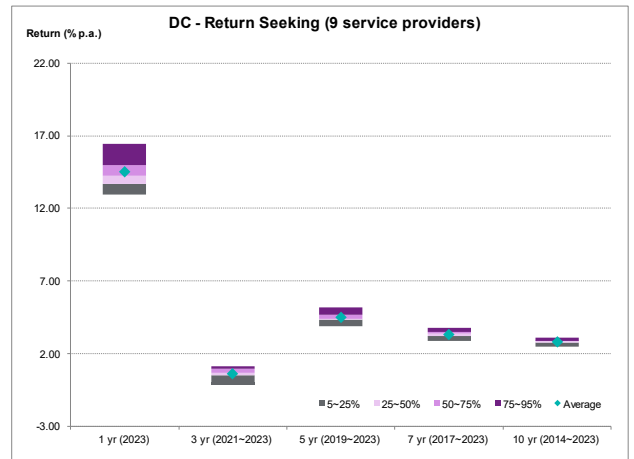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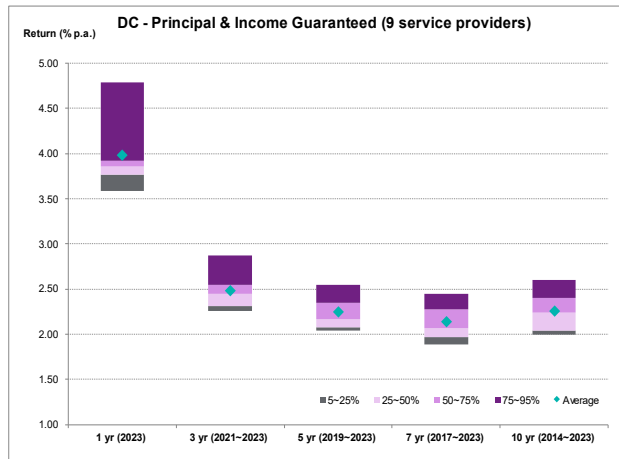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2022년 말 대비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은행권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이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23년 6월 대비 9개 사업자 모두 상승하였으며, 평균 상승폭은 90bp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투자증권의 1년 수익률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대비 다소 낮은 수익률인 3.7% 보임.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3년 시장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9개 사업자 모두 두자릿수의 1년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 증권업권의 경우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자산 금액보다 크거나 유사한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음.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2022년 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의 자산 증가액이 12,08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 장단기 수익률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Figure 03.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수익률 (%)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1년 (2023)	3년 (‘21-’23)	5년 (‘19-’23)	7년 (‘17-’23)	10년 (‘14-’23)	자산규모 (단위:10억)	1년 (2023)	3년 (‘21-’23)	5년 (‘19-’23)	7년 (‘17-’23)	10년 (‘14-’23)
KB국민은행	10,974	3.9	2.3	2.1	1.9	2.0	1,677	13.7	0.5	3.7	2.9	2.7
신한은행	10,343	3.9	2.3	2.1	2.0	2.1	1,626	13.5	0.8	4.3	3.5	2.9
IBK기업은행	10,978	3.8	2.2	2.0	1.9	2.0	763	14.2	0.7	4.6	3.4	2.9
미래에셋증권	4,308	4.1	2.5	2.2	2.1	2.2	4,826	14.9	1.0	5.2	3.9	3.2
삼성증권	1,901	3.7	2.3	2.1	2.1	2.0	1,573	16.9	1.2	4.7	3.4	2.9
한국투자증권	1,491	5.2	3.0	2.6	2.4	2.6	1,434	12.6	0.1	4.1	2.8	2.4
삼성생명보험	5,769	3.5	2.5	2.4	2.3	2.3	691	15.0	0.6	4.4	3.3	2.7
교보생명보험	2,408	3.8	2.6	2.4	2.2	2.4	658	15.8	0.9	5.1	3.6	2.9
미래에셋생명보험	1,062	3.9	2.7	2.5	2.5	2.6	317	14.3	-0.4	4.4	3.2	3.0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 2024 WTW. All rights reserved.

About WTW

At WTW (NASDAQ: WTW), we provide data-driven, insight-led solutions in the areas of people, risk and capital. Leveraging the global view and local expertise of our colleagues serving 140 countries and markets, we help you sharpen your strategy, enhance organizational resilience, motivate your workforce and maximize performance. Work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we uncover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success – and provide perspective that moves you. Learn more at wtwco.com.

Contact Details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2.3430.2561
Chongson.an@wtwco.com